

한 국 어 판

# True Peace

Vol. 55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3年  
天曆 2월  
2025년 양력 3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세계선교뉴스

참어머님과 하나돼 순백 순결 순금이 되자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세계 축원

천일국 지도자 특별조회 / 참어머님, '천무원과 하나돼 나아갈 것' 강조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 신일본 타카사키교회 특별예배

제1기 신한국 신탐건 선교사 해단식 / 통일가의 선교정신 이어받아 책임 다할 것 결의



# 참어머님과 하나돼 순백 순결 순금이 되자

호리 마사이치/ 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



하늘부모님과 참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성혼식 때 마음속 깊이 결심하셨던 맹세를 이제야 우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맹세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태초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참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끝없는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올해 초 참어머님께서 ‘Holy Mother Han을 모시는 ○○○’라는 새로운 기도의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꾼으로서 입궁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참어머님과 하나되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지만, 2000년 전 이 새로운 방식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코페르니쿠스적 신앙관의 전환이자 위대한 신앙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 시험받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자들은 도망치거나 멀리서 십자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절대적인 신앙의 초석이 되었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핍박을 무릅쓰고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얻어, 기도하며 땅 끝까지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중심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단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화(聖和)에 동요된 우리의 상황은 겟세마네의 세 제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영과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에 얽매어 영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폐쇄적이고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되어, 참어머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래폭풍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 이후 참어머님의 노정이 얼마나 안팎의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자신이 독생녀임을 증거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바르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시대 모래티끌 속에 숨겨진 많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나가시면서 섭리역사의 진실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실체성령이시며 평화의 어머니, 천주의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인내하시며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영광을 목전에 둔 우리는 참어머님의 진정한 존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도록 참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백 순결 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위대한 영광을 증거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어머님과 하나됨으로써만 천일성전을 중심한 천일국 실체권 확대 시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는 ‘Holy Mother Han’이 우리의 왕 어머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직계자녀임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대의 인친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때를 앞두고 신아시아태평양에서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신통일한국의 기점인 가평군 복귀를 위해 필리핀 안티폴로시와 가평군이 자매도시 결연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가평군이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 각국의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박해가 현재진행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HTG 선교사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새로운 전도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 얼음 속에서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참어머님을 직접 섬기는 모델인 문신출 신흥 선교사의 세계 순례길을 선명한 꽃잎으로 장식하는 신아시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CONTENTS



### 권두언

- 02** 참어머님과 하나돼  
순백 순결 순금이 되자  
호리 마사이치/ 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

### 특집

- 09**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밴스 미국 부통령 “트럼프 2기 동안  
종교 박해에 맞서 싸울 것” 강조  
**12** 신일본 군마교구 타카사키교회  
특별예배 및 효정담회

### 세계선교뉴스

#### 신한국

- 17** 제1기 신한국 신탐건 선교사 해단식  
**18** 신한국가정연합 목회자 온라인 총회  
**19** 신한국 가정연합, 성화총회 개최  
**20** 신한국 교구 2세 회장 임명장  
수여식 및 효정담회  
**21** 제1차 효정 천심천보영성 모심  
40일 수련 개회식  
2025 효정문화예술 유스 캠프 폐회식  
**22**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승리를 위한  
KCLC 기도회 및 IAPD 초종교 기도회  
**23**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교육 대성황  
신복미  
**24** 캐나다 천주평화연합,  
세계종교화합주간 기념행사 개최  
**25** 캐나다 효정가족축제 및  
참부모론 2일 수련회  
**26** 신미국, 샌프란시스코  
참부모님 성탄 기념 효정누리

### 참부모님 말씀

- 04**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06**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세계 축원

### 참부모님 동정

- 08** 천일국 지도자 특별조회  
참어머님, ‘천무원과 하나돼  
나아갈 것’ 강조

### 신유럽·중동

- 27** 신유럽중동,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2주년 기념식  
이탈리아, 국가지도자 회의 및  
청년회 워크숍  
**28** 이스라엘, 튀르키예, 레바논  
전도·축복·교육활동



- 29** 체코 가정연합, 참부모론 3일 수련회  
신유럽, 카프와 하프의 전도 부흥  
신아시아태평양  
**30** 필리핀, 청년지도자훈련  
아시아태평양 3일 수련회  
**31** 신아시아태평양, 제21회 태평양  
성직자협의회 온라인 펠로우십  
**32** 네팔 가정연합, 40일 효정 청년지도자  
수련 수료식  
**33**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  
글로벌 종교간 대화 협력의 장 열려  
신중남미  
**34** 신남미, 100회 천심원 철야정성 대성황  
**35** 도미니카공화국 기성축복 행사 개최  
페루 UPF, 평화를 위한 초종교 대화의 장  
**36** 신남미 효정랑 졸업 및 출정예배,  
2세 축복을 위한 교육  
신아프리카  
**37** 나이지리아, 청년 축복 워크숍  
코트디부아르, 제3회 청년주일예배





#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 주체와 대상은 인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 아닙니다. 힘 자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려면 그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회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힘은 작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동맥 정맥과 같은 순환기관이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상응관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힘이 존재

하기 이전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세계를 보더라도 거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식물세계를 보더라도 수술 암술이 있고, 동물세계를 보더라도 수놈 암놈이 있고, 인간세계를 보더라도 남자 여자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성상의 존재로 계시면서, 그 이성성상이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화해 있으면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

재이며 격으로는 남성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적인 결실자, 보이는 실체로 태어난 것이 아담이고 해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이 비로소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삼고 심정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적 심정권을 중심삼고 종족적인 심정권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아담 해와 자체가 심정권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정권, 가정적인 심정권, 국가적인 심정권의 대표자가 됩니다. 아담 일대에서 모든 모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델, 가정



적인 모델, 국가적인 모델, 심정적인 모델이 전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을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 틀림없이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곳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는 곳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주체와 대상의 힘이 주고받음으로써 영존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제1성의 모든 이상적 요소를, 하나님이 상상하고 구상하던 모든 실체를 형상화시킨 것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사랑이상으로 열매맺게 될 때는 이 우주 존재 세계의 남성권이 결실되는 것입니다. 이 남성권은 누구로 말미암아 결실되어야 하느냐? 인류의 조상 되는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실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은 해와로 말미암아 결실될 것이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비로소 평면에 하나님의 착륙이 벌어집니다.

### 하나님의 체가 될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를 입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아담 해와가 사랑으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내적 형상을 표면화시켜 실체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담 해와 완성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체가 있어야 됩니다. 체가 있는 세계를 지배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번식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적인 영계에 가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종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수직점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종적인 이 축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번식하려면 평면적인 면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평면과 360도를 중심삼고 구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녀를 낳고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담 해와의 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랑의 상대를 영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만 딱 만들어 놓고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1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영속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으로 하여 영육 양면의 세계를, 즉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세계를 주관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라고 하는 실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 해와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 완성, 곧 형(形)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으실 때 그의 형태, 인상(人相), 인격 등이 무형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형이 없으면 형의 세계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체를 입지 않고는, 체를 갖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를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할 텐데, 그 체를 입는 대표가 아담 해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가진 하나님, 즉 영원한 무형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입고 나타난 자리, 부모의 자리에서 세계를 통치할 책임이 아담 해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지은 것은 아담 해와의 형상을 따서 영계와 육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체를 입지 않았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체가 필요합니다. 체를 입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체를 써야 만우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참부모의 체를 입어서 보이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중심이 되고, 부모가 되고, 왕이 되고,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어서 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체를 입고 나타나야 하고, 또 형체를 가진 인간과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아담 해와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마음과 같은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해와의 내적인 주인, 내적인 아담 해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되고 해와와 하나님이 하나되어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면 결국 안팎의 부부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사랑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적 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묶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려고 창조한 것입니다. **ㄸ**

---

이 말씀은 천일국 경전 『천성경』 제1편 제3장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세계 축원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이 벅찬 천일국 13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을 주심을 창조주 하늘부모님께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타락 이후 전쟁과 갈등으로 하루도 평화로운 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도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선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얼마나 힘

들고 고달팠으면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4천년 만에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으나, 마리아와 이스라엘민족은 책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더더구나 동방박사까지 별을 보고 찾아온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일 기록이 없습니다. 30년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노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돌

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고,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오마’ 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2천년 기독교 섭리가 출발이 됩니다. 초기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로마제국의 인정을 받아 이태리반도를 중심으로 유럽대륙,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왜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 했는데 그 뜻을 몰



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핑계로 전도에 나섰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대서양문명권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늘의 창조 원칙을 놓고 볼 때, 독생자가 탄생되었으면 그 상대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민족을 통해서 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탕감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탕감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타락한 인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선민을 택해 세워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독생녀의 탄생은 기독교 환경권에서 탄생되어야 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개신교에 신령 역사가 일어날 때 계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민족은 일제하에 있었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남과 북으로,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독생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창조 원칙에 의해서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의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참전하여 선(善)의 피를 흘렸을까요? 하늘이 함께 하셔서 독생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남과 더불어 하늘을 부모로 알고 자랐습니다. 내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책임을 완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1960년에 참부모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힘

든 세월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 나와서 결국은 기원절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위주로 나왔습니다.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조주께서도 창조주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독생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도 섭리를 알아주는 자 없는 가운데 홀로 걸어 나와 7개국 복귀, 7개 종단 복귀, 대륙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 가정, 천보가정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해야 됩니다. 독생녀 참여머니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크게 넓게 넓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가정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이 말했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에는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이 Holy Mother Han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찾는 데 있어서 1세·2세·3세 할 것 없이 퓨어워터들이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Holy Mother Han과 하나 된 여러분 모두가 천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글은 천일국 13년 1월 5일(양 2025.2.2, 청심평화월드센터) 천원궁 승리 입궁 세계연합예배에서 하신 말씀을 편집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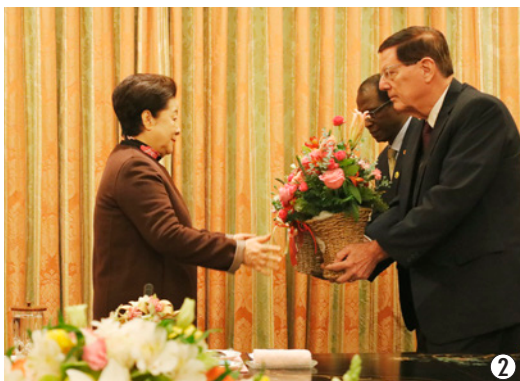






천일국 지도자 특별조회가 천력 1월 7일(양 2.4) 참여머님을 모시고 참가정, 섭리기관장, 대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궁에서 개최됐다. 참여머님께서는 이날 섭리적 황금기에 모든 기관들이 천무원과 하나돼 일사분란하게 나아갈 것을 강조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신 후 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천의원장과 바카리 카마라 신아프리카 천의원장이 감사와 효정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봉정했다. 이어 성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 후 박수홍 UPA 단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와 하늘 섭리의 승리를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하늘 앞에 간구했다. 이날 각 대륙 회장들은 소감을 발표하며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하드리고, 미래세대와 축복가정을 통한 섭리 완성의 희망을 결의했다. 

①꽃다발 봉정 ②축하케이크 커팅 ③천일국 지도자 특별조회 전경





#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밴스 미국 부통령 “트럼프 2기 동안 종교 박해에 맞서 싸울 것” 강조



‘일본 종교의 자유’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전문가 비터윈터 편집장 마코 레스핀티, 곤도 노리시게 일본 변호사, 나카야마 다쓰키 일본 변호사,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IRF 공동의장, 파트리샤 듀발 국제변호사 (왼쪽부터)

전 세계의 종교의 자유 침해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종교자유재단(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IRF) 주최로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이하 ‘IRF 서밋 2025’)가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2천여 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권한 부여(Empower), 입법(Legislate), 옹호(Advocate), 활성화(Activate): IRF 서밋 2025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트랙”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IRF 서밋 2025’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종교의 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현되었다.”고 전하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성과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종교 박해에 맞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①특별연설을 하고 있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②샘 브라운백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③‘일본 종교의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는 뉴트 킵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④⑤‘일본 종교의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는 파트리샤 듀발 국제변호사,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⑥지지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날 밴스 부통령의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단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연합체인 ‘IRF 서밋’은 워싱턴DC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국제 종교 자유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 킵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통일교 해산 시도는 헌법 넘어선 조치”

이번 회의에는 현직 대통령과 총리, 노벨상 수상자,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여해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등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캔자스 주지사와 공화당 상원의원을 역임한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IRF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150개 이상의 조직이 IRF와 협력해오면서 종교, 양심, 신념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증진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소수 종교단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와 천주평화연합(UFP)은 이날 IRF 서밋 만찬 ‘일본 종교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을 주관했다. 만찬 연설에 나선 뉴트 킵리치 전 하원의장은 “현재 일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를 해산하려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없는데도 통일교를 파괴하려는 것은 일본 헌법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 일본 정치에 대한 미국의 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 버튼 전 연방 하원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

람을 위한 것이며, 어디에서나,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며 가정연합 종교법인을 해산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회장은 “최근 일본정부를 통해 진행하





는 가정연합의 법인해산명령 청구 사태에 대해 일본 언론조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침해에 관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IRF 서밋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 자행된 일본 가정연합 신도의 납치감금에 따른 강제개종, 일명 ‘디프로그래밍’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국제변호사는 “가정연합 활동을 방해하고 디프로그래밍된 신도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촉진함으로써 교회 자산 약탈을 계획하려 시도했다.”고 밝히며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중단 권고도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행

태”라고 비판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한 세계적인 선교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종교법인격을 인정받아 정상적인 활동을 펼친 종교단체가 단 한 건의 형사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법인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세계 종교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신일본 군마교구 타카사키교회 특별예배 및 효정담회

“지금은 3대권과 천무원이 하나돼서 나가야 됩니다. 천무원을 왜 세웠느냐? 미래의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신일본가정연합 군마교구 타카사키교회 특별예배 및 효정담회’가 천력 1월 26일(양 2.23) 타카사키 가정교회 성전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별예배는 군마교구 교육부장의 사회로 준비찬송, 묵도, 개회선언, 성가대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경배, 가정맹세 제창, 군마교구 여성부장의 감사기도, 테라다 나오키 대교회장의 설교, 꽃다발 증정,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의 특별메시지, ‘부모님 품속으로’ 찬양, 테라다 나오키 대교회장의 축도, 전체기도,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청우 처장은 지난 9개월 동안 참여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천무원을 설립하신 섭리적 목적과 뜻을 전했다.

## 천무원을 세운 참여머님의 뜻

이청우 처장은 특별메시지에서 “천무원을 세운 섭리적 목적으로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의 뜻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천원국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천일국 중앙청의 역할 수행을 위해,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미래 환경권 조성을 위해서”임을 밝히고, ‘천일국 이상을 실질적으로 구



현할 최상위 섭리기구’이자 ‘독생녀 참여머님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최고 기구’임을 증거했다.

또한 “지금 천무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목표, 능력 이상의 과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욱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신일본교회의 시련도 결국 ‘Holy Mother Han’과 완전 일체화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참여머님과 완전히 일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후 2시부터는 군마교구 효정담회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시됐다. 제1부 효정담회는 450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Holy Mother Han’을 모신 천일국의 참자녀들임을 실감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청우 처장은 식구들에게 “참여머님께서 40여 일 앞으





①성화학생 대표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는 이청우 처장 ②성가대 찬양 ③특별예배 전경 ④효정담회 전경

로 다가온 입궁식 승리를 위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신 입장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또 한편으로 이 한날을 얼마나 기쁨과 설렘으로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모른다.”며 “우리 모두가 참여머님과 똑같은 태도와 자세, 똑같은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효정담회는 신일본가정연합 주요 공직자와 섭리기관장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청우 처장은 이날 말씀을 통해 오직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된 지도자, 그 말씀과 지침에 절대복종하는 지도자가 천일

국의 진정한 공직자이며 의로운 충신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회적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지도자들부터 당당하게 외치며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청우 처장은 특히, 일본 헌법이 하늘섭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도록 방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참부모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가운데 하늘 섭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Holy Mother Han’ 참여머님과 하나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일본 타카사키교회 예배 특별메시지

## 천무원의 섭리적 정체성과 역할



천무원의 섭리적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참여머님께서 경륜하신 최근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머님께서 천무원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일국 13년에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실제로 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무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이 직접 이 나라와 세계를 치리하시는 때에 발 빠르게 참부모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무원을 만들었습니다.” (2024.6.20)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을 건립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행정처의 중심인 천무원을 세웠습니다.” (2024.9.3)

“천무원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한국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024.12.3)

“이제는 천무원을 중심삼고 세계가 하나가 돼 가지고 교황청처럼 해나가야 됩니다.” (2025.1.7)

“지금은 3대권과 천무원이 하나돼서 나가야 됩니다. 천무원을 왜 세웠느냐? 미래의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2025.1.31)

“중앙청 개념인 천무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Holy Mother Han의 수고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더 넓게, 높게, 크게 환경권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가정, 세계 모든 선민가정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2025.2.4)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내용을 토대로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어머님께서 ①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천무원을 세우셨습니다. ②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의 뜻을 전 세계로 전파하시기 위해, ③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④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기반 조성 및 확대, ⑤천일국 중앙청의 역할 수행, ⑥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미래 환경권 조성을 위해서 천무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천무원은 조직적 차원에서 크게 4가지 영역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①천무원은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최상위 섭리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천일국을 대표하는 중앙 행정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전 세계 교회와 기관이 섭리적 목적 및 방향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핵심 아젠다 제시와 전체 사업에 대한 총지휘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비롯한 실질적인 천일국 환경권 확장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③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제고 및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림 독생녀이신 참어머님의 안위를 포함하여 경륜하시는 모든 섭리와 행사의 특별의전과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참부모님의 말씀이 영원히 전승될 수 있도록 말씀 녹음파일과 문서기록 자료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고,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 세계 교회와 기관에 올바르게 전달 및 실행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정리와 번역, 공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무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천일국 이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최상위 섭리기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독생녀 참어머님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최고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연합 이하 모든 기관에 천무원을 중심으로 하나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참어머님께서 천무원을 통해 섭리를 직접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미래세대가 확장해 나가야 할 천일국 환경권

저는 우리 미래세대 퓨어워터들이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천무원에 더 많이 들어와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마교구에도 많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을 위해 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주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퓨어워터들이 세상을 더 맑고 건강하게, 그리고 더 선하게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가정연합과 모든 섭리기관은 천무원과 절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보다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권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신 축복가정 공동체가 대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더 영광되게 드높일 수 있습니다.

###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 의미

섭리적 차원에서 입궁식은 하늘섭리의 완성, 인류역사의 완성적 의미가 있다고 참어머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원궁 천일성전은 하늘부모님의 집이라 하였고, 입궁식은 “하늘부모님께서 6천 년 만에 처음 행차하시는 날”,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님과 그 자녀인 축복가정들과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시작하시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섭리적인 의미가 너무나 크고,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거대한 행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참여머님께서는 저와 천무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절대 하나돼야 한다. 나와 하나되면 해낼 수 있다.”

지금 천무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목표, 능력 이상의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욱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공동체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감히 엄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승리의 날은 반드시, 기어코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리 마더 한 참여머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홀리 마더 한을 따르는 의로운 기독교 무리와 선한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표국인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하늘 뜻에 부응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하늘의 나팔수가 되어 부당한 해산명령 청구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것! 반드시 승리는 우리 식구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 하늘어머니의 실체 ‘Holy Mother Han’

천일국 13년을 참여머님께서 ‘하늘아버지만이 아닌 하늘어머니까지 포함한,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역사적인 출발의 때’로 확립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선민, 천일국 참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양력 1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Holy Mother Han’이라는 새로운 성칭을 선포하시고, 그 기대 위에 성탄을 맞으시기 3일 전, 기도 마무리를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그리고 축복자녀들은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자녀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Holy Mother Han’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 말씀을 통해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실체, 말씀의 실체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전지에서 천일국 안착의 새 시대, 하늘어머니의 실체가 바로 참여머님이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며, ‘Holy Mother Han’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려져 있던 하늘어머니를 직접 부를 수 있고,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천원궁 승리 입궁 시대에 참여머님께서 축복가정과 인류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와 각 교회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천일국시대에 대입하면, 초림독생녀 ‘Holy Mother Han’을 모신 지금은 최고의 빛 된 시기,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역사적인 황금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고, 항상 의로운 승리 위대한 승리가 함께하 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글은 천력 1월 26일(양 2.23) 일본 군마교구 타카사키교회 특별예배에서 강연한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의 특별메시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참석자 소감문

##### ▲ 타카사키교회, 대교회장

오늘 참어머님의 사랑의 빛을 보았습니다. 승리하신 참어머님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있는 지금, 정말 황금기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의 사랑의 빛에 둘러싸인 이 황금기, 섭리의 일환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사랑의 빛을 받으며 세포 하나하나가 뛰고 있습니다. ‘왕엄마! 홀리 마더!’ 라고 온 힘과 전력을 다해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참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 오오타교회, 여성부장

하늘이 선민으로서 한민족을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참어머님을 독생녀로 세워주시고 인도해오신 하늘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어리기만 한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청우 처장의 메시지를 들으며, 정말로 저희가 하늘이 원하시는 심정세계와는 너무 멀리 있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참어머님께서 바라시는 신령과 진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부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교회장과 하나되어 식구들을 사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무원을 통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마에바시교회, 3만가정

메시지를 들으며, 참어머님과 하나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자녀로서 어머님을 생각하는 심정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나 책임분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참어머님과 하나된 마음이 아니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한 자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으시는 참어머님의 심정과 온전히 하나되고 싶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독생녀, 참어머님과 함께할 수 있는 황금기에 그 뜻에 응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 ▲ 카미카와교회, 2023 효정천주축복가정

이청우 처장이 전한 내용 중에 감동 받아 눈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일 천심원 철야정성으로 한국과 일본의 식구들이 하나되어 한국 땅에서 일본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는 조직은 가정연합뿐입니다. 신통일한국과 신일본이 통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일본의 승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일본 식구들은 지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어머님과 하나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참어머님을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황금기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빛나는 때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ㄹ



# 제1기 신한국 신탐건 선교사 해단식 통일가의 선교정신 이어받아 책임 다할 것 결의



제1기 신한국 신탐건 선교사 해단식이 천력 1월 9일 (양 2.6), 청파동 전본부교회에서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김영석 부협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신탐건 선교 과정을 해단하는 선교사, 청년공직자 및 식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해단식 행사는 양권일 청년학생국장의 사회로 경배,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제창, 황소영 1기 단장의 대표보고,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황보국 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임종호 1기 선교사 선창의 억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소영 1기 단장은 대표보고에서 “1년간의 선교 기간 동안 늘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을 살리려는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했고, 신탐건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하늘 앞에 간구했다. 이어서 선교지 9개국을 대표해 우간다 팀, 호주 팀의 활동보고와 간증이 있었다.

수료증 수여는 홍콩,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미국, 캐나다, 우간다 팀 순으로 국가별 수여가 진행됐다. 황보국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1975년 ‘탐건’이라는 이름으로 참부모님 말씀을 전했던 통일가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신탐건 1기는 참어머님께서 강조하시는 퓨어워터로서 주변 사람들을 맑은 물로 정화하고 제왕나비 무리처럼 전 세계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보국 협회장은 축도에서 “하늘부모님을 대신하여 1기 선교사들 한명 한명이 쌓아올린 선교노정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며 하늘 앞에 간절히 보고했다. 해단식은 임종호 1기 선교사 선창의 억만세 삼창으로 성료됐다. 

①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의 축도 ② 제1기 신한국 신탐건 해단식 기념촬영



# 신한국가정연합 목회자 온라인 총회

##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실체적 승리 결의



신한국가정연합 목회자 온라인 총회가 천력 1월 21일(양 2.18), 신한국 협회 7층 회의실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총 412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Holy Mother Han’을 모신 전국의 목회자와 협회 임직원들이 하나돼 54일 앞두고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실체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영석 부협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제창, 오인철 인천·경기북부 교구장 보고기도, 황보국 협회장의 말씀, 정동원 천주평화연합(UPF) 부회장의 천원 평화축제를 중심한 월드서밋 보고, 이준 전도국장, 양길문 가정국장, 오인중 총무국장, 류인용 대외협력국장의 국별 발표, 황보국 협회장의 축도, 오영재 대전·충남교구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 경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보국 협회장은 이날 말씀에서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대에 대한 섭리적 의미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80일 특별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황보국 협회장은 “천원궁 입궁



①말씀하고 있는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②사회를 하고 있는 김영석 신한국 부협회장 ③천원평화축제 보고를 하고 있는 정동원 UPF 부회장 ④온라인으로 참여한 전국 목회자들 ⑤신한국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목회자 온라인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은 인류 역사의 완성이자 섭리가 완성되는 날이다. 하늘부 모님께서 독생녀 참어머님을 통해 지상을 직접 치리하시게 된다. 천원궁은 하늘부모님의 본성전이며, 축복가정은 하늘부모님이 안식하시는 실체성전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축복가정들의 혈통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은사 성주식은 전 세계 축복가정들의 혈통문제 등 잘못을 정리하고 ‘선민 축복가정’으로서 천일국의 참자녀로 출발하는 포괄적 특사”임을 강조하며 천일국 가정예배 정착과 천원궁 입궁식 승리를 위한 정성을 독려했다.

이어서 정동원 천주평화연합 부회장은 전·현직 국가수반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월드서밋 2025’에서의 ‘국제 국회의장 회의’ 창설 등 주요 준비과정을 보고했다. 또한 월드서밋을 주제로 ‘기후 환경과 지구의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과 평화’, ‘초종교 평화운동’을 중심한 4가지 분과 세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후 신한국 협회 국장들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 발표, 황보국 협회장의 축도, 오영재 대전·충남교구장의 억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전체 행사가 성료됐다. 





# 신한국 가정연합, 성화총회 개최

## 중·고등부 1200명 성지순례·공연 대성황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천력 1월 16일부터 19일(양 2.14~16)까지 사흘간 경기도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025 신한국 성화총회’를 개최했다.

천지인참부모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2주년을 기념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효정 히어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년 만에 열린 총회로 전국 중·고등부 12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전국 13개 교구 교구장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이스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1240회 천심원 철야 특별정성에 참석했다. 둘째날에는 장기 자랑 대회, 신앙관을 고민하고 발표하는 효정스피치 대회, 어울림마당, 효정 박람회, 드림콘서트, 찬양기도회에 참여했다. 마지막 날엔 장기자랑 수상팀 공연, 천정궁과 천원궁 중심의 천원단지 성지순례 등이 이어졌다.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은 “창립 70주년을 지나고 있는 성화학생회가 있기에 가정연합이 세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며 “여러분은 섭리역사를 통틀어 마침내 찾은 홀리마더 한(Holy Mother Han)의 귀한 아들딸로,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자랑스러운 퓨어워터(pure water)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은 폐회식에서 효정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 후 신한국 성화 총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신 참여머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어 “축복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로 자랑스럽고 멋진 신한국 성화가 되길 바란다.”며 “천원궁 입궁식 때 실시하는 성결식에도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①폐회사를 하고 있는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 처장 ②개회사를 하고 있는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③찬양기도회





# 신한국 교구 2세 회장 임명장 수여식 및 효정담회 참가정 3대권 안착과 세대 간 협력 강화의 시대적 사명 인식



①신한국 13개 교구 2세 회장  
기념촬영 ②효정담회 전경

신한국 교구 2세 회장 임명장 수여식 및 효정담회가 천일국 13년 천력 1월 28일(양 2.15), 신한국본부 7층 회의실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김영석 부협회장, 전국 13개 교구 2세 회장, 전도국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40세 이상 2세들이 ‘Holy Mother Han’을 모시고 하나되어 휴면 2세 복귀를 통한 신한국 교회 성장, 세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황보국 협회장은 전국 13개 교구 2세 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격려한 후 말씀을 통해 “참어머님께서 원모평애재단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2세·3세권에 투입하신 참사랑이 2025 신한국 청년총회와 성화총회로 열매 맺고 있다. 통일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준비되고 있는 이때, 40세 이상 2세권이 교회의 중추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세대 간의 화합과 협력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Holy Mother Han’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2세·3세가 하나 돼 사랑과 심정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통일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며 2세 모임이 13개 교구를 넘어 250개 교회로 확대되어 나갈 것을 축원했다.

이날 담회는 이준 전도국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가정맹세, 정성민 경남교구 2세 회장의 보고기도, 참석자 소개, 김영석 부협회장의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황보

국 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효정담회,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석 부협회장은 경과보고에서 “2세권 활성화를 위해 50대 이상 신한국 협회와 섭리기관 공직자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준비모임을 하고,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 교구 2세권 활성화를 위한 책임자를 임명하게 됐다.”고 밝히며, 2세 가정회, 대구권 회원회 모임, 회원회 5기 모임 등을 소개하며 2세권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2세권 신앙과 심정적 상황 및 모임의 현황을 공유하고 교구 2세 회장들의 제언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천원궁 천일성전 특별 은사 성주식에 2세권이 모두 동참해 본연의 자리에서 하늘부모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과 40세 이상 2세권의 정성을 모아 천일성전 입궁 은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봉헌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②



## 제1차 효정 천심천보영성 모심 40일 수련 개회식



제1차 효정 천심천보영성 모심 40일 수련 개회식이 천력 1월 15일(양 2.12) 천성왕림궁전에서 진행됐다. 이번 모심 40일 수련은 수련생들이 하늘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효정의 심정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하늘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천일성전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성 천심원

장은 영계에서 받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수련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수련생들은 개회식과 함께 하늘 앞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모심 수련 40일 노정을 출발했다. 

## 2025 효정문화예술 유스 캠프 폐회식



2025 효정문화예술 유스 캠프의 폐회식이 천력 1월 15일(양 2.12) 92명의 수련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효정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온누리로 피워내는 한의 노래, 효정을 다하는 퓨어워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원주 천무원 부원

장은 참여머님의 뜻을 밝히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천원궁 천일성전에 대한 참여머님의 구상, 기획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수련생들에게 수료증 및 하사품을 전하며 40일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형석 효정문화원 부원장은 경과보고

에서 캠프 기간 전체 일정을 되짚으며 수련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수련생들은 소감발표를 통해 60일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정성을 다해 천상의 무대를 봉헌할 것을 결의하며 행사는 성료됐다. 

##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승리를 위한 KCLC 기도회 및 IAPD 초종교 기도회



한국종교협의회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승리를 기원하며, 기독교 성직자들을 초청한 한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 기도회와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한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초종교 기도회가 2월 18~1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18일, 한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

기도회에서 김석진 교구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 의미를 설교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해누리교회 신호철 담임목사는 ‘나라의 위기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 주제로 주제강연을 했다. 19일, 초종교 기도회에서는 한국 종교계를 대표한 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7개 종단 성직자들이 참여해 합심초를 점화하며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 각 종단 성직자들은 기도의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나아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합심할 것을 결의했다. ㄹ

## 2025 신통일한국론 강사교육 연찬회



2025 신통일한국론 강사교육 연찬회가 천력 1월 20일(양 2.17) 기독교 7대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 불교, 유교, 민족종교 등 16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연합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성배 효정국제연수원장은 ‘한민족종교인성회’의 발기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종

택 예정합동개혁 총회장과 보검 스님은 축사를 통해 통일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은 한민족 선민대서사시 특강에서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참부모님 현현에 대해 설명하며,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인의 자세를 역설했다.

오후에는 일본 선교사들과 한국 강사들이 신통일한국론을 강의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깊은 공감과 감동을 함께 나눴다. 마지막으로 진성배 원장은 3:1 절 행사에서 ‘한민족종교인성회’가 공식 출범됨을 밝히고, 신통일한국 이념을 실천해 나갈 지도자 대표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ㄹ



#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교육 대성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①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교육이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주제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성황리에 전개되고 있다.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은 1월 21일, 구리시 보훈 향군회관에서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주요 지도자들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구리시 대국민교육’에서 한민족이 지녀온 문화의 우수성과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선민의 역할을 강조한 후 ‘하늘 아래 인류 한가족’의 이념과 함께 4월에 예정된 천원궁 입궁식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대국민교육 선산대회’가 1월 19일, 기독교·통일교 연합예배 형태로 열렸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은 강연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아갈 길은 한 길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선을 확장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임을 일깨웠다.

한편, 2월 22일, 23일에는 수원, 청주에서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주관 대국민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교육은 3월말까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내용을 담은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주제의 강연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②

①구리시 대국민교육 ②수원시 대국민교육 ③청주시 대국민교육



③

황보국 협회장 초청 신통일한국을 위한 청주시 대국민 교육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일시 : 2025년 2월 22일

장소 :  청주 통일회관 7층

2025. 3 23



## 캐나다 천주평화연합, 세계종교화합주간 기념행사 개최

캐나다 천주평화연합(UPF)은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을 맞아 천력 12월 27일(양 1.26) 몬트리올에서 종교·시민사회 지도자와 UPF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기념오찬 모임을 가졌다.

찬탈레 비아우 UPF 캐나다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캐나다 UPF 회장인 프랑코 파물라오 박사는 창립 이래 수십 년 동안 종교적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UPF 이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사회 논평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유명한 전직 캐나다 라디오 진행자 에릭 르 레스트 씨는 “영성은 단순한 믿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명의 패널이 논평했다. 캐나다 에큐메니즘 센

터의 데니차 츠베코바 박사는 ‘외적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내적 평화’,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용기’, ‘종교의 세속화에 따른 종교표현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후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퀘벡 시티 모스크의 공동 창립자인 부펠자 베나브달라 회장은 “UPF가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은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퀘벡 주의회의 앙드레 모랭 의원은 전체 세션에서 “종교 간 조화와 평화의 가치를 지지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밴쿠버에서는 평화대사 월레회의가 열려, 환경보호와 UPF 관련 활동사항이 소개됐다. 이 행사에서 나이지리아 UPF의 치지오케 이피안카마 평화대사는 평화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공유, 박수갈채를 받았다. 

①발표 및 토론하고 있는 참석자들 ②캐나다 몬트리올 기념행사 ③참석자들의 기념촬영 ④캐나다 밴쿠버 기념행사





## 캐나다 효정가족축제 및 참부모론 2일 수련회

캐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세계평화화인연합이 공동주최한 '캐나다 효정가족축제'가 천력 1월 5일(양 2.2) 토론토 다운스뷰에서 효정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로 중국 설날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전통 공예, 차 시음회, 게임 등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부모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주제로 효 글짓기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은 부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작성, 효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문화축제이자 효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됐다.

캐나다 참부모론 2일 수련회가 천력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양 2.8~9) 앨버타주 캠로즈에서 개최됐다. 수련은 온라인 줌을 통해서도 다수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카즈미 캄바시 박사의 진행으로 '참부모님의 심정', '독생녀의 의미' 등을 주제로 9강좌가 이어졌다.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참부모님의 사랑과 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참여머님의 현현이 갖는 역사적, 섭리적 의미를 되새겼고, "참여머님께서 '퓨어워터의 어머니'로서 섭리역사적 의미를 가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①효 글짓기 대회 ②참부모론 교육 후 기념촬영 ③효정 가족축제에 참석한 식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③





# 신미국, 샌프란시스코 참부모님 성탄 기념 효정누리

참부모님 성탄 기념 샌프란시스코 효정누리 예배가 천력 1월 12일(양 2.9)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가정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세대 간 화동과 친교, 새해 목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2세 성화학생 카미오카 유키 군은 '감사'와 '현재 살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식구들은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하하며 음악 공연, K-Pop 댄스 등 축하공연을 펼쳤다. 또한 초·중등부

학생들이 참부모님을 위한 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사랑 아래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세대 간 퀴즈 게임 '카훗'(Kahoot)에서는 우승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같은 날 참부모님 성탄기념 예배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소재 가정교회에서 진행됐다. 식구들은 찬양과 화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복가정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①신미국 효정누리 전경  
②효동어린이 생일 축하행사 ③댄스 공연  
④노래 공연





## 신유럽중동,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2주년 기념식



신유럽중동에서 천력 1월 6일(양 2.3),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12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비전에 대해 감사를 올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며, 식구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 식구들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공

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명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참부모님 성탄의 섭리적 의미 제고와 뜻의 실현을 위해 영적 부흥 섭리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 이탈리아, 국가지도자 회의 및 청년회 워크숍

이탈리아 국가지도자 회의가 천력 12월 7일(양 1.6) 주요 지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르가모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고려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영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합동기도, 공동체 사명 수행과 일체화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새로운 아이디어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이탈리아 ‘섭리 복귀를 위한 청년회’(YARP) 동계 워크숍이 천력 12월 3



일(양 1.2) 총 16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 감사, 용서, 일체화로 다시 태어나다’ 주제로 열렸다.

콜레 마티아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참어머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현재 진행 중인 섭리에 더 가까이 다가



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섭리적 가치를 위해 실천하고 공동체의 더 큰 사명에 기여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했으며, 참어머님의 비전에 대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 이스라엘, 튀르키예, 레바논 전도·축복·교육활동

신유럽중동대륙의 중동지역에서는 전도·축복·교육활동이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가운데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스라엘 가정연합은 예루살렘 HJ센터를 중심으로 참부모님을 증거하며 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천보특별수련을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축복가정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튀르키예 천주평화연합(UPF)은 ‘문명 연합’을 주제로 제3차 평화대사 월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평화대사 페자 바사르 박사와 야마자키 요시히로 이사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두익사상과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레바논 가정연합은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참부모님으로 새식구를 위한 효정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주 신입회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참여어머니의 새로운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교육에 감동하여 은혜의 소감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①튀르키예 UPF 주최 제3차 평화대사 월례 포럼  
②이스라엘 천보특별수련, 전도활동  
③레바논 효정리더십 교육 ④레바논 물병 기부 긴급지원

다량의 물병을 기부받아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전 국가 원수,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및 기타 중동의 저명한 고위 인사들을 섭외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체코 가정연합, 참부모론 3일 수련회



①기념촬영하고 있는 체코 참부모론 3일 수련생들 ②강의 후 질문하고 있는 수련생

체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천력 1월 17일부터 19일까지(양 2.14~16) 참부모론 3일 수련회를 개최했다. 프라하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에서 온 70명이 참가했다.

수련회는 강사들이 한 달 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정성들인 기반 위에 실시됐으며, 참여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독생녀임을 강조하고 신앙적 이해를 더욱 심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 진심 어

린 기도와 찬양으로 깊은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사와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아 더욱 단단한 신앙적 결심과 공동체의 결속을 이룸으로써 축복가정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신유럽, 카프와 하프의 전도 부흥



①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②③모임을 가진 HARP, CARP 회원들

중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카프(CARP)와 하프(HARP)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카프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강의를 위해 연습하고, 하늘섭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 전도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카프와 하프가 합동 모임을 열어 회원수가 증가하는 기쁨을 나눴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지난 1년간 카프 회원들과 청년들의 모임을 통해 내부결

속을 다지고, 친구와 동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앙유럽에서 카프와 하프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도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신앙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필리핀, 청년지도자훈련 아시아태평양 3일 수련회

2025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필리핀에서 청년 지도자훈련(YLT) 아시아태평양 3일 수련회가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 청년지도자훈련 지역특별팀 멤버 4명은 3개월 11일간(2024.10.14~2025.1.26) 캄보디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의 선교활동을 마치고 필리핀에 귀환해 이번 수련에 참가했다.

청년지도자들은 첫 해외 선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과 참여머님을 뵙기 위한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실적과 기쁨을 올릴 것을 결의했다.

첫째 날에는 호리 마사이치 아시아태평양 회장과 만나 선교 보고와 간증을 나누었고, 저녁에는 국제평화 지도자대학(IPLC)에서 천심원 기도회에 참석했다. 둘째 날은 성지에서 새벽 경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아시아 선교 심정 공유와 차기 선교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청년기를 흥미진진한 목표에 바치라’는 레오 안젤로 할로그 협회장의 특강과 천심원 기도

회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별팀 멤버 조슈아 막시푼은 “처음 나가는 해외선교라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멤버 니콜 몬데자는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참석을 소망하며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고, 잔야 아우차니차이는 “비록 영어가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선교 활동의 기적을 만드셨다.”고 간증했다.

①~⑤청년지도자훈련에 참여한 캄보디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선교사들





# 신아시아태평양, 제21회 태평양성직자협의회 온라인 펠로우십



태평양성직자협의회(PCLC)는 2025년 1월 28일 '하나님의 왕국은 가정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제21회 온라인 월례 펠로우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태평양성직자협의회가 천일국 13년을 맞아 참어머님의 비전을 실현하고 기독교 일체화와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릴 것을 결의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18개국에서 77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는 엘리야스 소리아 대주교의 개회선언, 아뉴스 데이 성가대의 찬송, 라니에라 페네 목사의 개회기도, 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의 환영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조연설자인 제프리 파이어스 목사가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3대축복에 대해 발표했고, 마가렛 시저슨 목사는 가정내 4대심정권과 결혼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시드니 청년 성가대의 찬양 후에는 인도네시아 청년 목회자공동체 공동설립자 메일라니 리사마수 목사의 진솔한 간증이 이어졌다. 라울 바르셀라와 그레고리스톤 사무총장은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의 마지막은 로버트 키틀 공동의장의 폐회사와 함께 톤튼우 목사의 찬양으로 성료됐다. 



①'하나님의 왕국은 가정의 왕국' 주제로 열린 온라인 펠로우십  
②시드니 청년 성가대의 찬양  
③온라인 월례 펠로우십에 참여한 태평양 성직자들

## 네팔 가정연합, 40일 효정 청년지도자 수련 수료식



①②효정 청년지도자들에게 수  
여증을 수여하고 있는 에크낫 다  
칼 회장 ③40일 수련을 마친 네  
팔 청년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  
고 있다.

네팔 가정연합 주최 40일 효정 청년지도자 수련 수료식이 1월 29일 ‘청년 지도자 양성, 국가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카트만두 센터에서 개최됐다.

수료식은 에크낫 다칼 천주평화연합(UFP) 아시아태평양 회장, 비노드 당기 천보가정·원로지도자, 산토시 쿠마르 파우텔 남아시아 부회장, 프라카시 바부 타파 협회장 등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에크낫 다칼 회장은 청년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이어가는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비노드 당기 목사는 “청년들이 국가 발전과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섭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그 책임을 강조했고, 프라카시 타파 협회장은 “세상을 품고 참부

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퓨어위터가 되어야 한다.”며 섭리를 이어갈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을 축원했다.

이번 40일 수련과정은 룽싱 반다리 원장의 지도 아래 10명의 청년들이 원리강의, 봉사활동, 전도활동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연결되도록 하는 도전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40일 과정의 어려움과 영적 성장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한 참가자는 “신앙이 기적을 만든다. 일선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수료식은 반다리 원장의 선창으로 2025년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는 억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되었다. 



##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 글로벌 종교간 대화 협력의 장 열려

인도 천주평화연합(이하 UPF)은 마타 순드리 대학의 평화 클럽과 협력한 가운데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을 기념하며 2월 6일에 각 대학에서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마타 순드리 대학 대회에는 학생과 귀빈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델리대학교에서는 12개 단과대학의 학생 22명이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각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웅변을 하며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크리슈나 아디카리 인도 천주평화연합 사무총장은 UPF의 글로벌 종교간 활동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도 UPF의 활동을 소개하고 전국적인 평화 클럽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승자들에 대한 상금 및 증서수여식이 진행됐고, 행사를 주재한 모이트리 데이 박사가 주최한 감사 투표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종교간 화합을 주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장이 마련돼,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네팔 UPF는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과 공동주최로 2월 9일 카트만두에서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을 기념하며 종교인 조찬 모임을 가졌다. 평화와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4명의 저명한 종교지도자들과 여러 종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통해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①~④인도 마타순드리대학, 델리대학 등 각 대학교에서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을 기념해 선포대회를 갖고 있다.

④





# 신남미, 100회 천심원 철야정성 대성황

브라질 협회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신남미대륙 철야정성이 천력 1월 10일(양 2.7) 100회를 맞이했다. 신남미대륙 철야정성은 브라질 협회본부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철야정성은 라이브중계로 참여한 찬양역사 이후 신남미 천심원 철야정성 100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신남미 1지구 브라질 협회장 내외의 꽃다발 봉정과 주요 지도자들의 케이크 커팅 의식을 통해 100회 기념일을 축하했다.

또한 신남미 지구장들의 축하영상에 이어 김성남 분원장이 앞으로 진행될 신남미 천심원 섭리에 대해 설명했다.

신남미의 퓨어워터인 미래세대 청년들도 특별찬양과 천심원 은혜 간증을 전하며 100회 철야정성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은 말씀에서 “100회를 맞이한 철야정성을 각 국가로 확산시켜 매일 진행될 계획”임을 전하며 “천심원 정성을 중심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신남미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세계연합예배에서 새롭게 주신 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늘어머니 섭리’를 설명했다.

신남미대륙의 식구 모두는 하늘과 공명하고 하나되길 기도드리며 천원궁 입궁식까지 전력투구할 것을 결의했다. 



①신남미 주요지도자들의 케이크 커팅 ②찬양역사 전경





## 도미니카공화국 기성축복 행사 개최



신중미 5지구 도미니카공화국 기성축복식 행사가 천력 1월 1일(양 1.29)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을 세계로 확장’이라는 주제로 27쌍의 부부가 참여한 가운데 바야구아나지역 카르테날

산차 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복식은 신종족메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교사와 교장을 포함해 총 60명이 참석했다. 축복식은 주례입장, 성수의식, 성혼문답, 예물

①②도미니카공화국 기성축복식에 참여한 신랑신부들

교환, 성혼선포, 신랑신부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케니아 교장의 축사로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 페루 UPF, 평화를 위한 초종교 대화의 장



①②페루와 콜롬비아 종교지도자들 ③종교화합과 평화를 위한 의식 ④각 종교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남미 3지구 페루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초종교 행사가 천력 1월 9일(양 2.6) 유엔 세계종교화합주간을 맞아 ‘하나님 아래 평화를 위한 형제애와 종교간 대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페루 회장인 예수스 마누엘 메히아 키로스 주교를 비롯해 10개 교파의 지도자들

은 세계평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화를 위한 초종교 행사는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자리로 결실됐다. 



## 신남미 효정랑 졸업 및 출정예배, 2세 축복을 위한 교육

신남미 효정랑 13기 졸업 및 15기 출정예배가 1월 26일, 브라질 협회본부를 중심으로 신남미 대륙에서 진행됐다. 효정랑은 신남미 대륙의 퓨어워터 7년 교육과정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마친 뒤 2년간 헌신하며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간이다.

이번 예배에서는 13기 효정랑 15명이 졸업하고, 새로 헌신을 결의한 15기가 출정하게 됐다. 졸업생 중 한 명은 효정랑 과정을 통해 “모든 습관과 일상들을 하늘에 정렬하고 본심으로 살도록 훈련할 수 있었다.”며 지도자들과 지지해준 친부모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부모 대표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희망으로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효정랑 청년들은 졸업 이후, 대학교에 진학해 CARP 과정을 걸거나 사회로 진출해 신앙을 이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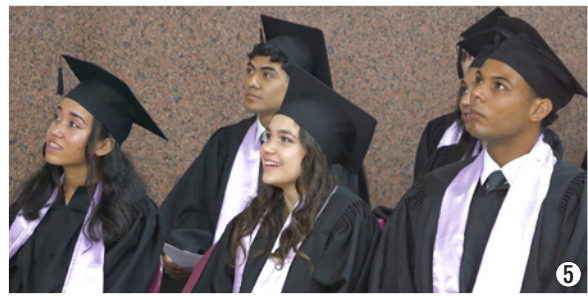
2025년 축복식을 앞두고 2세 축복을 위한 교육이 1월 중 3차례(1.11-12, 1.21, 1.25-26)에 걸쳐 브라질 협회



본부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11일부터 이틀간 참부모님 생애노정 교육이, 25일부터 이틀간은 축복의 가치와 의의 및 2세 정체성과 공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두 교육을 통해 2세들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축복을 통해 진정한 축복가정이 될 것을 결의했다.

또한 1월 21일에는 2025년 축복식 설명과 자녀 축복 준비 활성화를 위한 부모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44명의 지도자와 부모들이 참석, 축복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매칭 및 약혼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①축도하고 있는 사사키 코이치 브라질 협회장 ②격려를 하고 있는 사무엘 오타 린나레스 부협회장 ③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엔히케 디 사 효정랑아카데미 단장 ④축하공연 ⑤신남미 효정랑 13기 졸업생들





## 나이지리아, 청년 축복 워크숍



①②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축복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 4월에 거행될 천주축복식 참가자 모집을 위한 청년 축복 워크숍이 천력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양 1.21~22)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의장인 존 오코리코 박사가 설립한 솔리드 록 킹덤 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청년 축복 워크숍은 조지 오구리

에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지역 코디네이터 겸 지구장이 강의를 맡았고, 참가자들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축복의 의미에 대해 배웠다.

오코리코 박사는 폐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오랜 꿈의 실현'이라고 표현하며, 1980년대 남북미통일연합(CAUSA)에서 시작되어 축복까지 받게 된 인연

을 이야기했다. 또한 한국에서 대규모 축복식이 있었던 것처럼 나이지리아 아콰이봄 주에서도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축복식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밝혔다.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청년들의 결혼관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92명이 7일 수련회 참가신청을 했다. 

## 코트디부아르, 제3회 청년주일예배



제3회 청년주일예배가 1월 26일 '천일 성전 입궁을 위한 열쇠'를 주제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효정성전에서 열렸다. 2세 축복가정인 트레버 쿠아메 리더는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참부모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해 내려주신 지침들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하늘부모님을 위한 패션쇼, 흥내내기 마임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①~③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성전에서 개최된 청년주일예배





“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세계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자녀가 되자!  
”

